

쓰러진 어르신, CPR로 생명 구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김걸 씨

13년차 물리치료사 김걸 씨, 심폐소생술·제세동기로 70대 어르신 생명 구해

광주 지역 복지관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진 70대 어르신이 13년차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6분께 광주 북구 효령동 한 노인복지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노인일자리 참여 차원에서 복지관에 나온 A씨는 주변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리고 탈의실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다.

쓰러진 A씨를 보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지관에서 13년 동안 일해 온 베테랑 물리치료사 김걸(48)씨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김씨는 두 손을 모아 A씨의 가슴에 가져다대 강하게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했다.

수 분 동안 이어진 심폐소생술에

도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제세동기를 꺼내들어 작동시켰다. 제세동기를 통해서야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복지관에 도착, 김씨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입원한 A씨는 병원 도착 직전 의식을 회복, 심혈관계 질환 수술을 마치고 현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즉시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면서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이다.

김씨는 “응급상황에 대해 여러 번 상상했다.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누구든 몸소 나섰을 것”이라며 “모든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은 김씨에 대해 하반기 하트세이버 표창 수여를 검토한다. /이동기 기자



담양 가사문학면-곡성 목사동면,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 가사문학면 직원들과 곡성군 목사동면 직원들이 지난 22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상호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 직원 30명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관당 15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지역발전에 힘을 모았다. /담양=조승재 기자



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식·기술경연대회 순천소방서는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순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숙)를 23일 밝혔다. 기념식에 김문수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순천 낙안면, 주암댐 실버대학 어버이날 행사 개최 순천시 낙안면은 주암댐 실버대학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1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레크레이션, 지역가수 공연,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우쿠렐레, 건강댄스팀의 재능기부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읍, 공직자·사회단체 함께 '클린데이' 행사 광양시 광양읍은 지역 내 12개 사회단체와 함께 익산초남산단 일원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주 삼형제 양궁선수, 소년체전 대표 발탁 눈길

광주체육중 조여준·쌍둥이 동생 삼정초 유준·담준



삼형제 양궁선수가 소년체전 대표로 발탁될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체육중학교 2학년 조여준 군과 삼정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동생 유준·담준 군. 삼형제는 3월 광주여대 양궁장에 /조선주 기자

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선발 양궁 예선대회를 통해 각각 중등부·초등부 대표로 발탁됐다.

삼형제는 오는 5월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종목 초·중등부 대표선수로 출전, 금빛 과녁을 쏘아줄 예정이다.

아버지 조세영씨는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끈기와 도전정신을 배우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 받을 때가 많다”며 “전국대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 여준 군은 “동생들이 좋은 기록을 내면, 더 기쁘고 뿌듯하다”며 “전국대회에서도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선주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미래내일 일컬' 운영기관 선정

새스마트인재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5년 미래내일 일컬 사업' ESG지원형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경험, 멘토링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직무 탐색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3기수, 7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과 기업 인턴십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교육, 6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집체교육 및 현장 인턴십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기술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표기업인 ㈜유큐브와 협력해 ESG 기반 실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과 인턴십 활동을 진행한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포트폴리오 제작, 모의면접 등 1대1 취업 컨설팅과 진로 멘토링, 심화 스터디 등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도기 기자

순천 왕조1동, 치매예방 위한 치유교실 운영 '호응'

다양한 인지 향상 활동...건강한 노후 생활 도와



순천시 왕조1동은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치유교실인 '신나는 뇌운동! 희희낙락 교실'을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나는 뇌운동! 희희낙락 교실'은 202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된 /순천=조준익 기자

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표현하고, 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온몸을 자극하는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에 맞춘 신나는 몸풀기, 기억력 및 인지 훈련 등의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에 참여한 어르신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신나는 몸동작을 하니 생활에 활력이 된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고 말했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이번 치유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통 기회를 넓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수강생 모집

목포대, 내달 2일까지 접수...시민 누구나·전 강좌 무료



국립목포대학교와 목포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2025 평생교육 거버넌스, 목포사랑 시민대학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목포사랑 시민대학'은 시민의 삶과 배움을 잇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만 19세 이상 목포 시민 및 목포시 생활권자(근로자, 사업자, 대학생 등)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전

과정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자격,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강스포츠, 미래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좌가 마련돼 있다. 1기 과정은 5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목포대 목포캠퍼스와 남악캠퍼스에서 운영된다. 주요 강좌는 △조경기능사(사별기) △노인운동지도자 △공감과 소통의 말하기 △부동산 활용의 첫걸음 △내만의 퍼스널컬러 & 이미지메이킹 △우리소리 & 우리가락 △차와 함께하는 마음치유 심인물 명상 △온라인 마케팅 강화 SNS 실전 활용 등 총 8개 과정이며, 약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목포대 평생교육원 누리집(http://cec.mokpo.ac.kr), 남악캠퍼스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또는 전화(061-270-1612~3)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NH농협 함평지부 임직원, 고향사랑기부

뜻 모아 1000만 원 기탁...지역사랑 실천 앞장



함평군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함평군은 23일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임직원 20명이 이날 함평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함평군지부는 평소에도 함평에 대한 애정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기부 또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사랑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금은 함평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농협 장흥지부, 영농지원 발대식·일손돕기

고흥·보성·강진군지부·용두농협 임직원 30여명 참여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는 영두농협(장동면)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보성군지부, 강진군지부, 영두농협 임직원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장동면 옥묘장 모판정리 및 종자 망 작업 등을 진행하며 부족한일손을 보탤다. 농협중앙회 4개군(고흥·보성·장흥·강진)일손돕기 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농철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장흥군지부 김해중 지부장은 "이번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협4개군 연합 농촌 일손돕기 행사가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